

시론



오수열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한국동북아학회 이사장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와 4·10 총선

과열양상이 높은 사전투표율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민생경제가 지금처럼 어려울 때가 없었고 한다. 심지어 IMF 때보다도 어렵다는 하소연들이 없지 않고, 더욱 큰 문제는 총선 이후라는 걱정들마저 들려오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경제위기가 어찌 현 정부만의 탓이겠는가. 가장 크게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 등 국제적 경제 환경의 영향과 사드(THAAD) 이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한중관계의 탓도 있을 것이다. 특히 과일, 채소 값의 폭등은 날씨와 병충해 등 정치외적 변수에 크게 영향 받은 것으로 이는 천재지변에 속하는 일이나 현정부 입장에서 역외의 축근도 없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정부·여당의 태도에서 진지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것이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대파를 치켜들고 "이정도면 합리적 가격"이라고 하지 않고 대통령 부인이 중앙시장이나 경동시장의 노점상에서 가서 실제 가격에 대파를 구입하면서 서민들의 물가를 걱정했다면 여론은 어땠을까... 아마도 이번 총선이 죄 없는 '대과총선'으로 전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실제 삶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인식을 표출시킨 대통령의 모습과 문제가 확산되자 '그 가격은 한 묶음이 아니라 한 개'를 지칭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나서는 여당후보의 모습에서 과연 그들이 민심(民心)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민심과 동떨어지는 야권 또한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에서 진보를 표방하

는 야권후보들의 공통점은 여권 후보들에 비해 비교적 청렴하다는 것이었고 이것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동력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유독 이번 선거에서는 도덕성, 특히 청렴도에서 야권 후보들이 오히려 여당 후보보다도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참으로 해괴한 일이다. 변호사는 사건수입을 거부할 수 없지만 최소한의 윤리의식은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재임 중 다단계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했던 검사가 변호사가 되어 몇 개월 만에 그 분야로 수십억 원의 수입료를 받는 것을 대과 값 걱정하는 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물론 남편의 일이지, 후보자 본인의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총편의 TV토론에 나와 그토록 정의(正義)를 외치던 사람이 대학생 딸을 내세워 1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 올바른 일은 아니지 않겠는가.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스스로가 흠결이 없어야 하고 땀땀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하지 않을까 싶다.

원론적으로 대선 후 치루어지는 총선은 당연히 하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지니는 것이고, 이점에서는 회초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긴 안목으로 보면 의회권력에서도 최소한의 균형은 도모되어야 여야간 건강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제3당도 역할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명색이 평생을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쳤던 사람으로 이번처럼 지지 정당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때가 일찍이 없지 않았나 싶다. 그렇지만 어떡하겠는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으로 향하는 유권자의 모습에서 우리 정치의 희망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며칠 전 성균관의 지도자 한분이 유럽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정치인은 참 말이 많은 사람들이며, 서로 자신이 잘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이든 다 할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한 것을 읽었다.

정작 성균관에 큰 스승으로 모시는 공자님께서는 "정치는 바른 것(政者正也)이라고 하였으니 그것을 행하는 정치인이야말로 말한 것은 실천하는 올곧고 정직한 사람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공자님 스스로도 정치에서 자신의 포부를 펼쳐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분이라는 것은 역사에서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심한 막말이 등장하는 등 지저분한 선거라는 혹평을 받는 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총선의 날이 밝았다. 이처럼 혹평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사전선거의 투표율은 31%를 상회하여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 이러한 아이러니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투표일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유권자들의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여·야간 적대감이 가장 높은 현상 속에서 국민들 또한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패배하는 경우에 대한 위기의식이 빛어낸

자치칼럼



이계양
광주푸른꿈창작학교 교장
품자주자시민들 공동대표

레오의 섬김과 공동체

을 체험해 보겠다는 결심"으로 결맹(Bund)에 가입하여 순례에 참여한다. 그런데 이 결맹 순례 참가자는 "누구나 자신의 개인적인 순례 목적을 가질 수 있었고 또 가져야만 했다. 왜냐하면 이런 개인적인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참가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각자는 공동의 이상과 목적을 따르고 있고 또 공동의 것발 아래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 자신의 독자적이고 순진한 어린아이다운 꿈을 가장 내면적인 힘으로 또 궁극적인 위안으로 자기 가슴속에 간직"해야 했다

그리고 순례 중 레오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짐을 나르는 일을 도왔고, 때로는 사사로운 일을 맡아 하곤 했다. 또 단원들을 위해 식탁을 차리고 빨래하고, 즐거운 노래로 그들의 피로를 풀어주었다. 불평과 하소연을 들어 주고, 가야 할 방향을 안내, 격려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동물들까지도 그를 따랐다.

단원들은 날마다 편안히 여행하면서도 그것이 레오의 섬김(봉사) 덕분임을 깨닫지 못했다. 어느 날 하인 레오가 모로비오 계곡쯤에서 사라진다. 단원들은 레오를 찾았으나 실패한다. 이제 단원들은 식사도 빨래도 직접 해야 했다. 피로를 풀어주던 노래, 휘파람 소리도 없는 삭막한 들에서 잠을 자야 했다. 단원들은 자신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 사분오열하여 다부며 일상의 평온이 무너졌다. 급기야 순례를 포기하는 단원들이 생겨나고, 결국 순례는 끝나게 된다.

H.H도 그제야 레오가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순례단의 진정한 리더였음을 깨닫지만 회의를 빠져 순례단 결맹에서 낙오하게 된다.

그 후 H.H는 순례단(공동체)을 이탈한 죄

로 심판장에 서게 된다. 심판관은 놀랍게도 레오였다. 레오는 순례단의 하인이 아니라 숨은 지도자였던 것이다. 결국 동방 순례의 대열 속에서 드러나지 않게 봉사하던 하인 레오가 무리의 최고 지도자였음을 확인하게 되는 이야기다.

헤세는 작품을 H.H의 조각상과 레오의 조각상이 합쳐지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아마 H.H가 레오에 의해 합일, 동일체, 구원받았다는 뜻일 것이다.

급속한 변화 속의 현대산업사회는 책임감의 결여와 이기주의의 신자유주의 등으로 적자생존의 논리로 빠져들고 있다. 갈등과 대립이 첨예화하고 소외와 배제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인류가 직면한 큰 문제점의 하나는 개인이건 국가건 각자도생의 생존경쟁에 목을 맨다는 점이다. 이 끝이 죽음이요 파멸, 공멸임을 알면서도 인류는 그 길로 매진하는 듯해 안타깝고 슬프고 무섭다.

오늘도 인류는 (동방순례) 중이다. 자의견 타의견 너도나도 결맹 즉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며 살아간다. 순례단에서 하인 레오의 섬김을 통해 단원과 결맹 즉 개인과 공동체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음을 본다. 레오의 퇴장은 곧 섬김의 부재요 이는 공동체의 붕괴를 의미한다.

지금 인류는 사라지는 레오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러기에 간절한 심정으로 레오의 섬김의 옷자락을 붙잡고 싶다. 전통적인 공동체의 정신인 상부상조, 서(悳)의 정신,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상히해 보며 (동방순례) 중인 인류에게 지금 레오의 섬김을 새롭게 새겨본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가족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또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또는 의지와 선택에 의해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 유치원부터 학교, 지역사회와 사회단체 또는 직장 그리고 취미와 기호에 따라 각종 각양각색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 공동체가 원만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한다. 전통 사회에서는 향약과 같은 규약을 통해 상부상조, 서(悳)의 정신 및 타인과의 다름을 인정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을 공동체 의식의 밑거름으로 삼았다.

(유리알 유희)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헤르만 헤세 (동방순례)라는 작품이 있다.

(동방순례)는 말 그대로 '동방'으로 가는 순례의 여행길이다. 여기서 '동방'은 지리적 공간이나 특정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이기도 하고 어디에도 없는 곳', '영혼의 고향이기도 한 곳'이다. 즉 영혼의 고향이자 정신적 세계, 개인과 공동체의 이상이 실현된 곳, 궁극적인 도(道)이다. 따라서 소설 (동방순례)는 정신적 내면적 여행인 셈이다.

그리고 소설의 화자인 H.H(헤르만 헤세의 이니셜을 딴 명칭으로 작가의 대리인)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엇인가 위대한 것

독자투고

얼마전 도심의 주택가에서 버섯이 마약을 제조하고 투약한 외국인들이 검거됐다. 이들은 대마 결정체인 '해시시'를 만들다 잠복 중인 경찰에 검거됐는데 마약이 사회 곳곳에 확산되고 있다는 단편적인 예시를 보여준다. 이처럼 마약 제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농촌과 도시의 구분도 허물어지지 오래다. 투약자 또한 연령대를 넘어 남녀노소, 내

외국인을 불문하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에는 청소년층까지 급속도로 확산되는 실정이다.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경찰에서는 양귀비 개화 시기를 맞아 집중단속을 펼쳐 관상용이나 불법임을 자각

하지 못하고 소규모로 재배하다 입건된 사례도 발생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마약은 자신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범죄행위로 더 이상 우리사회에 뿌리내리지 않게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이재훈·정충경찰서 경무계)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오늘 22대 총선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렸다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자 권리다. 빠짐없이 한 표를 행사해야 국가와 지방의 발전은 물론 개인의 행복까지 도모할 수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

윤석열 정부 3년차로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역대 어느 총선보다 열기가 뜨겁다. 사전투표율은 31.3%로 사상 최고였다. 전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40%를 넘어 41.2%로 1위, 광주는 38.0%로 3위를 기록했다. 양당이 세 걸결에 더 주력하면서 전체 투표율 역시 7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날까지 주요 교차로와 상가, 행사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찾아 사력을 다해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부동산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총력 유세를 벌였다.

하지만 여러 악재도 혼재했다. 윤 대통령의 대과값 발언 논란, 이종섭 대사-황상무 수석 사퇴, 진명(이재명) 황제 비명횡사 공전 과동, 양문석·김준혁·박은정 등 후보들의 편법대출 등 부적절 처신이 대표적이다. 이제는 민심의 현수주가

분명 드러난다.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야권이 20석 확보를 언급하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회초리를 달게 받겠다며 개헌 저지선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읍소 작전도 마다하지 않았다. 민주당 역시 자세를 낮춘 채 정권 실패를 심판해야 한다며 재차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전국적으로 지역구 50곳에서 근소한 차이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전남의 경우도 민주당 강세가 점쳐지지만 일부에서 예측 힘든 접전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그리고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 등 제3지대, 무소속 후보들은 막판 뒤집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전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비례대표 정당도 세월에 열중해왔다.

정책·공약 대결보다는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선거전이었다. 여야의 적대적 대치 속 정치 협상은 더욱 심화됐다. 지역구 25석, 비례대표 46석이다. 모두 300석이다. 유권자들의 최후의 선택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렸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사각지대 광주 아파트 단지

광주시는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도시지만 응급 상황에 대비한 준비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된 현장 50곳에 대한 표본 점검을 실시했더니, 모두 95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설치 기준 미준수, 유효기간 초과 및 등록 누락, 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이 그것으로 만일의 위급사태 발생 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에 위협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광주지역은 공동주택 363곳, 300인 사업장 169곳, 다중이용시설 246곳 등 모두 840곳으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광주시는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해 완료했다. 또 장비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한 사항은 기한을 뒤 이행 여부를 추후 확인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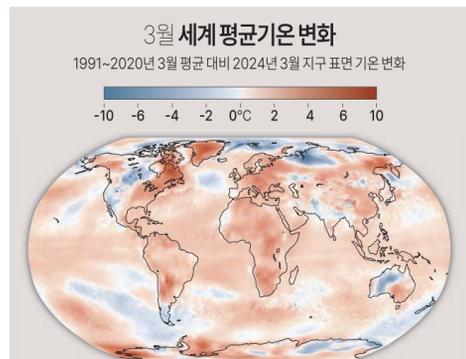
중중 SNS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 생명을 구한 미담이 알려지고 있다. 전혀 예기치 않은 원인으로, 또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인해 호흡이 갑자기 멈춘 환자에게 골든타임을 확보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료 기기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3만5천건(2022년 기준)의 급성 심정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초기 몇 분 안에 충격기를 이용하면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굳이 교육이 아니라도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충분히 실제 사례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한다. 특히 광주는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역사회와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등 의지와 역량도 높은 수준이며, 광주시는 민간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상에서 일어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관리에 있어 허슬해선 안 되는 것이다.

그래픽 뉴스

3월 세계 기온 또 사상 최고...10개월 연속 경신

지난 3월 지구 표면 온도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유럽연합(EU)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가 9일(현지시간) 밝혔다. C3S가 이날 공개한 '5세대 국제 기후대기 재분석'(ERA5) 데이터에 따르면 3월 평균 기온은 14.14도로, 이전 최고치인 2016년 3월보다 0.1도 높았다.



산업화 이전 시기(1850-1900년)의 3월 평균 추정치에 비하면 1.68도 높다. 이로써 지구 평균 기온은 10개월 연속 각달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12개월간(2023년 4월-2024년 3월) 지구 평균 기온 역시 1991-2020년 평균보다 0.7도, 산업화 이전 평균에 비하면 1.58도 높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3월 유럽의 평균 기온은 역대 두번째로 따뜻했다. 그 외 북미 동부, 그린란드, 러시아 동부,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일부, 아프리카 다수, 호주 남부, 남극 일부의 기온이 평균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극지방을 제외한 해수면의 3월 온도는 21.07도로 역시 3월 기준 최고였다. 학계에서는 기후변화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고다드 우주연구소 개빈 슈미트 소장은 매달 지구 온도가 이전 기록보다 최대 0.2도씩 뛴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실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부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문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고시사항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지10(가)10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